



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창설 22주년
24.06.24
13기
VOL.9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4.06.24.(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지회별 최강자를 가린다! 조합원참여사업 지회별 최강자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6월 16일 일요일 스크린골프대회를 마지막으로 5월 12일부터 당구, 스타크래프트(e-sports), 골프 총 세종목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경주지부배 지회별 최강자대회(이하, 대회)가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통해 경쟁하며 각 지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 마련된 각 대회는 지회별로 대회출전 선수를 선발하고 한 날, 한 공간에 모여 토너먼트를 치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한 지부 황준하조직부장은 “현장 조합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보람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양한 조합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구대회

- 개인전 우승 세진지회의 김윤재 동지
준우승 현대모비스물류지회 박재우 동지
3위 발레오만도지회 김영탁 동지
- 단체전 우승 다스지회 이상구/박창하 동지
준우승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심상우/주태광 동지
3위 현우지회 권영모/김사홍 동지



스타크래프트대회

- 개인전 우승 우영산업지회 박준영 동지
준우승 에코플라스틱지회 강선명 동지
3위 엠에스지회 정진솔 동지
- 단체전 우승 에코플라스틱지회 허영현/민인섭/최정환 동지
준우승 금강지회 설호상/노형석/유병훈
3위 엠에스지회 윤대호/손장혁/김동훈



스크린골프대회

- 우승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장인석 동지
준우승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유효종 동지
3위 우영산업지회 정윤석 동지



플라스틱옴니엄 2024년 투쟁 깃발을 든다!

플라스틱옴니엄 지회는 2010년 금속노조 탈퇴 이후 2021년 소수노조로 다시 금속노조지회를 설립하였다. 2023년 다수노조 획득으로 교섭권을 되찾았다. 올해 2024년에는 기업노조와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4월 상전례를 시작으로 6월 12일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6월 20일 양 노조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인원 95.2% 재적인원 86.8% 찬성을 확인했다. 그 동안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24년 핵심 요구는 주 52시간을 넘는 살인적인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로 변경하고 토요일 유급, 단체협약 동일 적용(사무직 조합원 년월차 지급), 임금인상 등 이다. 사측은 10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가지의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결국 자본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올해 이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단결로 조합원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금속노조다운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전보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우지회, 민주노조를 흔드는 분열세력에 맞서 조합원 단결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 중



현우지회는 최근 조합을 탈퇴한 전 간부가 현 지회임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하여 조합원들이 탈퇴서를 제출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회는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노조가 무너지면 노조가 없던 3년 전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임으로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지부는 사측과 탈퇴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복수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지회 순환 출근 선전전을 2주간 진행했다. 이 결과 현우자본은 6월 21일 지회를 방문해서 경직된 노사관계를 회복하자며 24년 임단투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지회는 이를 확약서로 명문화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2주간의 출근투쟁에 합류했고 쟁의행위를 85.7%로 결의함으로 민주노조 사수를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우지회는 자본의 탄압, 기획 공작, 조합 내부의 헐뜯음과 분열책동 등 조합원들의 단결로 극복하고 더욱 투명한 조직 운영과 소통을 통해 더욱 단단한 조직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엠에스정밀 매각중... 지부/지회 대책위 구성 대응 준비

엠에스정밀지회는 2022년 9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채무변제 기간을 늘려주어 경영정상화가 모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장가동율은 떨어지고 자금 경색이 악화되었다. 결국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지회는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3월, 5월 상여금을 미루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5월 급여일이 6월15일인데도 아직까지 임금체불이 되고 있고, 지급일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매각을 준비중이다. 서너개 업체가 엠에스정밀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무능력으로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라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다. 지부는 지회와 법률원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윤석열 거부권 거부!**

2024 금속노조

올 때까지 추진

1차 7.10(수) | 2차 7.18(목)

